

SKC(011790)

1Q26 Review NDR 주요 내용

이차전지/석유화학

Analyst 노우호

wooho.rho@meritz.co.kr

RA 황현식

hyeonsig.hwang@meritz.co.kr

2026년 수익성 및 유리기판 사업화 변곡점 대비

Meritz Research 2026. 5. 7

SKC는 1Q26 영업실적을 계기로 연간 이차전지 소재 및 화학부문 수익성 개선의 틀을 마련함. 실적 설명회 이후 진행한 국내/외 NDR 중, 투자자들의 질문은 (1) 유리기판 사업화 의문, (2) 이차전지 소재 턴어라운드, (3) 화학 구조조정, (4) 부채 비율 개선 등 재무전략으로 요약됨. 2026년 성장, 수익성, 재무 관점의 턴어라운드 원년의 해가 될 가능성 주목

[수익성] 2026년 화학부문 및 이차전지 소재부문은 뚜렷한 수익성 개선 가능. 석유화학은 대내/외 변수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 중. 이란 무력충돌로 발생한 석유화학 타이트한 공급여건은 전 제품으로 확산 중. 경쟁사 미국 LyondellBasell 역시 PO(프로필렌 옥사이드) 유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함. 현재는 정상 가동여건을 확보한 공급업체가 판매단가 상승분을 누릴 수 있는 국면. 동사의 화학설비 역시 계열사와 연계되어 정상 가동을 유지 중이며 차분기 역시 영업흑자 기조 가능. 석유화학의 공급 공백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. 정부 및 그룹의 석유화학 재편 정책에 맞춰 동사 역시 리밸런싱 속도전

이차전지 소재는 말련 가동률 반등이 핵심. 고객사들의 탈중국 원/소재 공급망 구축 노력으로 타이트한 수급 기조가 마련됨. 판매량 증분이 높아질 시점(북미 ESS 향 출하가 가동률 반등을 주도, 반면 EV용 동박은 바닥을 잡아가는 중). 또한 셀 기업들의 다변화 전략(Chemistry 및 폼팩터)에 맞춰 범용~하이엔드 동박 사업화 준비 중. 당사의 이차전지 소재부문 연간 이익 추정은 26년 -843억원, 27년 -11억원으로 뚜렷한 적자폭 축소 국면

유리기판

SKC는 유리기판 사업화를 주도하는 선도기업. 금번 NDR 투자자들의 주요 질문들은 (1) 기술 투트랙 대응(Embedding & non-Embedding), (2) 상용화 로드맵 및 고객사 인증/수출 달성, (3) 제반 기술(CPO 등)과의 기술 로드맵으로 요약.

- 사업 Update: 전기와 신호 등의 성능 검증 완료 후 내구성 및 신뢰성 테스트 준비 중. 생산 수출 확보 단계 진입
- 로드맵: 2026년 연말 전 사업 가시성으로 고객사 POC 계약 준비(7월 이후 고객사 신뢰성 테스트)

- 고객 및 Application: 기존 언급된 다수의 고객사들과 임베딩/논 임베딩 신뢰성 테스트 진행 중. 또한 수요 확장 가시성도 높아져(모바일 및 RF용), 차세대 기관 기술 선도를 위한 노력
- 궁극적으로 CPO 시대에 임베딩 유리기관과 연계: 신호 안정성, 전력 및 열 효율, 대면적/정밀도 개선

재무전략

SKC는 유리기관 시설투자 및 채무 상환을 위한 건전한 유상증자 진행 중. 또한 비주력/비효율 사업부문(기존 화학부문 및 생분해 소재) 제3자 매각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으로 현금화 전략 유효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